
소설과 표준어

김 철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애, 너와 나와 삼년 동안 동기같이 지내었구나. 이것도 무슨 큰 연분이로다. 안주 땅에는 너와 평양 땅에는 나와 이렇게 만나 이렇게 정답게 지낼 줄을 사람이야 누가 뜻하였겠느냐. 이후도 나를 잊지 말고 ‘형님’이라고 불러다오” 하면서 그만 울며 쓰러진다. 영채는 월화의 말이 이상하게 들려 몸에 와삭 소름이 끼치면서

“형님, 왜 오늘 저녁에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였다. 월화는 일어나 눈물을 씻고

“너는 부디 세상 사람에게 속지 말고 일생을 너 혼자 살아라. 옛날 사람으로 벼를 삼아라. 만일 네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지 못하거든” 한다. 이런 말을 하고 그날 밤도 둘이서 한자리에 잤다.

위의 인용문은 춘원 이광수의 「무정」(1917)에서 평양 기생 월화와 영채가 나누는 대화의 일부분이다.(표기는 현대 표기법으로 필자가 고쳤다.) 이로부터 4년 후인 1921년에 발표된 김동인의 대표작 중 하나인 「배따라기」의 다음 장면을 보자.

“너, 어떻게(어떻게) 여기 왔?”

아우는 잠자코 한참 있다가 겨우 대답하였다.

“형님, 거저 다 운명이란다.”

따뜻한 불 기운에 깜빡 잠이 들려다가 그는 화닥닥 깨면서 또 말했다.

“십년 동안에 되게 파랬구나.”

“형님, 나두 변했거니와 형님두 몹시 늙으셨체다.”

두 인용문의 차이는 첫눈에도 두드러져 보인다. 「무정」에서 월화와 영채가 주고받는 대화는 깎듯한 ‘표준어’임에 반해, 「배따라기」에서의 형과 아우의 대화는 생생한 평안도 ‘방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은 모두 평양 지방 사람들이며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 또한 평양 근방이다. 소설의 실감이나 리얼리티의 구현 문제로 보자면 김동인의 소설이 한 수 위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렇게 김동인의 손을 들어 주는 것만으로 이 문제가 간단히 끝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한국어의 근대화 혹은 한국 소설의 문체 형성을 둘러싼 더욱 복잡한 문제들이 개재되어 있다. (그런데 한국 소설의 문체를 ‘표준어/방언’의 문제와 연관 지어 고찰한 연구는, 필자가 과묵한 탓인지는 모르나, 아직 없는 듯하다. 지면의 제약도 제약이려니와 필자 자신의 능력의 한계 때문이라도 여기서 그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한 필자의 평소의 단상 몇 가지를 간단히 언급하면서 언어학 및 국어학사 연구자들의 관심을 촉구하고자 한다.)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표준어/방언의 구별은 근대 국가의 ‘국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겨난 구별이다. 이 구별이 ‘차별’로 전화하는 것 또한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다시 말해, ‘국가’의 수도에서 중류 계층의 사람들이 현재 쓰는 말’ 정도로 규정되는 표준어가 교양, 문화, 지식, 과학, 공공성 등 요컨대 근대적인 가치를 표상하는 한편으로 방언의 사용이 그와 대칭되는 가치, 즉 야만, 무지, 비과학, 사적 영역 등의 전근대적인 가치를 상징하는 영역으로 자리잡는 현상은 모든 근대 국가의 ‘국어’ 형성에서 나타나는 것이었다.

표준어의 우월성과 지배를 강조하는 이와 같은 논리가 언어 자체의 내적인 원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언어 외적인 정치성과 권력의 개입 결과라는 사실은 오늘날 많은 언어사회학의 이론들이 동의하는 바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동의와 상관없이, 표준어와 방

언의 위계적 인식 속에 아로새겨진 근대주의 혹은 식민주의의 뿌리는 의외로 깊고도 넓다. 사회 다위니즘적 근대주의가 인류의 역사를 전근대로부터 근대로의 직선적 발전 방향으로 단선화하고, 다시 그 시간관에 의거하여 세계의 각 지역을 근대 지역과 전근대 지역으로 분할함으로써 발전 사관의 시간관을 공간화하는 것은 근대주의의 기본 원리이다. 간단히 말하면, 선진국의 ‘어제’가 후진국이며, 후진국의 ‘내일’이 선진국인 것이다. 이러한 시간과 공간의 결합 원리는 다시 한 국가 내에서도 똑같이 되풀이된다. ‘도시’는 근대를 표상하며 ‘농촌’은 전근대를 표상한다. 농촌은 도시의 ‘과거’를 보존하고 있는 장소이며, 도시는 농촌이 지향해 나갈 ‘미래’의 모습이 된다. 선진국의 후진국에 대한 식민화와 더불어 이른바 내부 식민화, 즉 도시 지역에 의한 농촌 지역의 식민화가 동시에 수행되는 것이다. 표준어/방언의 구별이 이러한 근대화의 전체적인 과정 속에 놓인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한국어’의 경우, 이러한 표준어/방언의 명백한 위계화와 그 위계화에 근거한 근대적 언어 의식이 보편화한 것은 언제이며 어떤 계기를 통해서였는가? 이것은 매우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중류 계층 사람들이 사용하는 현재의 서울말’을 표준어로 규정하고 그것에 공적 언어로서의 지배적 우월성을 부여하기에는 ‘조선어’가 아직 ‘국어’가 아니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식민지에서의 조선어 사용자들이 오늘날 한국어 사용자들과 동등한 정도의 표준어/방언의 구별 의식을 가지고 있었을까 하는 것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경성어(京城語)’를 표준어로 삼고 기타 지방의 언어를 ‘방언’으로 인식하면서, 그 방언들을 자기 문화 보존의 소중한 창고로 활용하고자 하는 문화적 활동이 1930년대 특히 조선어학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벌어졌던 것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1933년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 발표와 1936년의 표준어 사정이 조선어에서의 표준어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켰을 것임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동시에 이러한 조선어의 근대화가 조선총독부 학무국 편집과(후일의 편수과)의 관리이며 경성제국대학 조선어과의 주임 교수인 오후라 신페이(小倉進平)의 조선어 방언 연구(『濟州道方言』(1913), 『南部朝鮮の方言』

(1924))에서 그 중요한 기초가 닳았다는 사실은, 비록 오쿠라의 조선어 연구가 ‘국어’로서의 일본어의 기원을 밝히기 위한 ‘주변 언어’의 탐구에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사실이다.

그러나 ‘경성어=표준어/경성 외의 다른 지방어=방언’이라는 편제는 그보다 더 큰 틀, 즉 일본 제국의 언어 편제 속에서 어떤 위상을 지니는가? 표준어/방언의 구분이나 방언의 보존 필요성 같은 언어의 근대화와 관련된 방법 일체는 어디서부터 온 것이었는가? 두말할 것 없이 그것은 조선어를 제국의 ‘국어’ 편제 안에서 하나의 ‘방언’으로 규정지은 제국주의 지배자들로부터 온 것이었다. 그렇다면 자신의 모어(母語)가 ‘국어’가 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성 지방의 교육받은 중류 계층 사람들이 현재 사용하는 언어’를 ‘표준어’로 규정하고 그 이외의 언어를 ‘방언’으로 설정하면서, ‘방언’을 ‘향토 문화의 중요한 유산’으로 보존하고 수집할 것을 주장하는 ‘한글 학자’의 위치는 매우 기묘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이 사태의 복잡미묘함은 이 짧은 글에서 간단히 논할 수 없다.

다시 이광수와 김동인의 소설로 돌아가자. 이광수에게서 흥미로운 것은 그가 남긴 수많은 작품에서 ‘방언’을 사용하는 인물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광수에게는 표준어와 방언의 차이에 대한 인식, 혹은 그것을 소설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의식이 없었던 것일까? 근대 학교 교육을 받지 않았을 평양 기생이나 시골의 농부들이 쓰는 언어가 천편일률적인 표준어(이광수가 「무정」을 쓸 당시에는 조선어의 표준어 사정은 되어 있지 않았지만) 일색인 것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짐작컨대 이것은 이광수가 지닌 계몽주의로부터 온 것이 아닐까 한다. 이광수가 소설을 계몽의 목적으로 썼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계몽주의자가 ‘사투리’를 쓴다는 것은 소설 속에서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이광수의 소설에서 (다른 작가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일본어나 영어는 대화나 지문에서 거침없이 쓰인다. 실감을 무시하면서까지 방언을 배제하고 깎듯

한 표준어에다 가끔 ‘고급 언어’인 일본어나 영어를 섞어서 대화체를 구성한 데에서 보듯, 한국어의 근대 문어체는 표준어가 공식적으로 공포되기 이전에도 이미 언어의 위계질서를 내면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김동인의 경우는 더욱 흥미롭다. 처녀작인 「악한 자의 슬픔」(1919)을 쓸 때만 해도 김동인에게는 소설 속의 인물들로 하여금 사투리를 구사하게 하려는 의식은 없었던 듯하다. ‘구상은 일본어로 하고 쓸 때에는 조선어로 썼다’는 김동인의 회고에 비추어 보아도 그의 최대의 관심사는 일본어 어휘나 표현들을 어떻게 적절한 조선어로 바꾸는가에 있었다. 두 번째 작품인 「마음이 여튼 자여」(1920)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이 작품의 무대는 평양이며 등장인물들 모두 평양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대화에서 평양 지방말은 나타나지 않는다. 김동인의 창작열은 이 시기에 매우 활발해서 많은 작품들을 발표하지만 방언에 관한 한 변화는 없다.

「배따라기」(1921)는 그 점에서 획기적인 작품이다. 김동인이 소설을 쓰면서 크게 의식했던 상대는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이광수와 염상섭이었다. 이광수의 계몽주의를 김동인은 넘어서야 할 벽으로 생각했고 문학을 계몽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예술로 인식함으로써 이광수와 맞서고자 했다. 살아 있는 사실, ‘활사실(活事實)’의 재현이야말로 그가 꿈꾸는 소설의 목표였고 이른바 자연주의의 핵심이었다. 동시에 염상섭의 등장은 김동인에게 커다란 자극을 주었는데 무엇보다도 염상섭이 소설 속에서 구사하는 서울 사투리에 김동인은 크게 놀랐다. 「배따라기」는 김동인의 소설에서 최초로 평양 지방의 사투리가 인물의 행동 속에 재현되는 작품이다. 김동인은 평양 사람들과 평양 일대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을 많이 썼는데 「배따라기」 이후로는 의식적으로 평양 사투리를 재현한 흔적이 역력하다.

김동인이 소설에서 등장인물의 사투리 사용에 매우 예민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다음의 예에 잘 드러난다.

「거칠은 티」(1925)의 주인공 ‘영애’는 서울 출신으로서 경상도 경주 출신의 과학자 S와 결혼한다. 화자인 ‘영애’의 입을 빌려 서술되는 이

작품 가운데 다음과 같은 구절을 유의해 보자.

경주(慶州) 태생인 그는 열두 살부터 서울 살림을 하였다 하지만, 아직 남아 있는 강렬한 경상도 사투리가 있었다. 없는 그를 생각하고 그리는 내게는, 그 전에는 천스럽게 보이던 사투리까지도 아름답고 정겹게 머리 속에 부활하여, 간혹 거리에서 강렬한 그 사투리의 말소리가 들릴 때에는 뜻하지 않고 돌아보고 하였다. <중략> 나는 마침내 그의 고향이고 아직 그의 낡은 집이 남아 있다는 경주를 가 보기로 하였다. 그때는 여름과 가을도 다 가고 겨울이 가까운 때였다. 그 강렬한 경상도 사투리--- 대구서 기차를 내릴 때부터 여관 사환에게서 또는 인력거꾼에게서 나는 그것을 들었다.

그러나 영애가 들었다는 그 사투리, ‘아름답고 정겹고 강렬한 그 경상도 사투리’는 작품 속에 한 번도 재현되지 않는다.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장면이다. 첫째, 이 진술은 작가 김동인이 소설을 쓰면서 사투리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준다. 근대 초기 한국 작가들이 한국어 소설 문체를 확립하기 위하여 벌인 고난에 찬 사투(死鬪)는 잊혀져서는 안 된다. 사투리 문제도 그중의 하나이고 김동인은 이 점에 매우 예민했다는 점을 이 장면은 보여 준다. 한편, 서울말을 표준어로 공식화하기 이전에 이미 서울말을 쓰는 ‘영애’라는 등장인물에게 경상도 사투리가 ‘천스럽게’ 보이고 있었다는 사실도 특별히 기억해 둘 만한 장면이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에서 경상도 사투리는 한 번도 재현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애’의 남편인 과학자 S는 경주 출신으로서 열두 살부터 서울에 올라와 살았지만 강한 사투리가 남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작품 속 S의 대화에서 경상도 사투리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작품의 후반부, 영애가 S의 고향인 경주를 찾아가는 부분에서는 아예 인물들 사이의 대화가 등장하지 않는다. 그녀가 만났다는 인력거꾼, 옛집의 늙은 부부, 거리의 사람들과 그녀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작가는 보여 주지 않는다.

집작건대, 이것은 자연주의자로서의 김동인의 자세로부터 나온 것이 아닐까 한다. 평양 사투리라면 김동인으로는 얼마든지 재현할 수

있다. 그러나 경상도 사투리는 그로서는 재현하기 어려운 언어였음에 틀림없다.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것을 소설가로서의 지고의 목표로 삼고 있는 작가로서 어설프게 경상도 사투리를 재현한다는 것은 차마 못할 일이었을 것이다. 계몽주의자인 이광수가 모든 등장인물의 언어를 표준어로 통일한 것과 같이, 자연주의자인 김동인은 자신이 그려낼 수 없는 사투리가 등장하는 순간에는 표준어로 통일하거나 아예 그려내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이것은 참으로 기묘한 일치가 아닐 수 없다.

놀랍게도 당대의 비평가들이나 독자들은 김동인의 소설 속에서 보이는 이러한 사투리 구사가 지니는 의미에 대해서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선어의 철자법과 표준어가 문제되는 30년대에 오면 표준어/방언의 위계질서는 상당한 정도로 진전되어 있었다. 가령, 관북 방언으로 가득 찬 백석의 시편들은 오늘날에는 ‘민족시’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추앙받고 있지만 당대에는 ‘복고적’, ‘퇴영적’, ‘향토주의’ 등으로 가혹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보면, 조선어학회를 중심으로 한 ‘한글 운동’의 결과 표준어/방언의 확고한 위계화가 사회적으로 폭넓게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다.

표준어와 방언을 구분하고 그것을 위계화하는 작업과 ‘국어’의 풍부함 및 그 역사성을 보증하기 위해 방언을 채집하고 보존하는 작업은 상반되는 듯하지만 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동시에 그것은 근대 국민 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모든 민족어가 겪은 필수적인 코스였다. 그리고 소설은 이 코스에서 가장 요긴하고도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장르였다.

오늘날 소설 작품에서 방언의 구사 여부는 작품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박경리의 「토지」에서 경상도 방언과 함경도 방언, 조정래의 「태백산맥」에서 전라도 방언, 이문구의 「우리 동네」 연작에서 충청도 방언 등이 모두 맛맛한 표준어로 쓰여졌다고 상상해 보라. 이 작품들이 오늘날 누리고 있는 성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하기 어렵다. 과연 방언은 ‘민족어’의 풍부함을 보증하

는 필수 불가결의 요소임이 이로써 분명하고 소설은 그것을 구현하는 최적의 근대적 장르임이 분명하다.

동시에 이 작품들에서 방언이 한편으로 어떻게 기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토지」의 주인공 ‘서희’는 어째서 단 한 번도 경상도 사투리를 구사하지 않는가? 작가가 이미 밝혔듯이, 서희에게 부여된 고귀한 인물의 성격을 구현하기에 경상도 사투리는 적절하지 않았던 것이다. 주위의 모든 인물들이 ‘강렬한’ 경상도 사투리를 구사하는 가운데 서희의 ‘단아한’ 표준어는 그 인물의 고고함과 차가움을 드러내는 데에 더할 수 없이 적절한 기능을 한다. 마찬가지로, 「태백산맥」에서의 주인공인 지식인 김범우는 「태백산맥」의 인물들을 살아 뛰게 하는 그 걸쭉한 전라도 방언들의 세계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급박한 시국에 대한 김범우의 깊은 사색을 전라도 방언의 세계로 표기하기보다는 표준어의 ‘중성적’(neutral) 발화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었을 것임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표준어가 지니는 이 의심할 수 없는 우월적 지위, 작품의 리얼리티와는 어긋나는 것임에도 분명히 효과를 지니는 표준어의 이 지배적 위치는 물론 교육의 결과이며 국민 국가 건설의 산물이다. 바로 그 점에서 소설은 국민 국가의 충실한 에이전트(agent)로서의 길을 걸어 왔던 것이다.